

해남 우수영 확 바뀐다...스카이워크·해상케이블카 등 조성

체험관광거점 조성 각종 기반조성사업 연내 완료 역사관광촌·법정스님 인문학하우스 건립도 '속도'

명량대첩 전승지인 전남 해남 우수영이 서남권 관광의 랜드마크로 거듭난다.

해남군은 우수영 일원을 체험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각종 기반조성 사업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오는 6월 울돌목 스카이워크가 완공된 데 이어 9월에는 해상케이블카가 운행을 개시한다.

먹거리를 확충할 역사관광촌 조성 과 법정스님 생가에 들어서는 인문학 하우스 건립 등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총길이 110m의 울돌목 스카이워크는 회오리 바다와 울돌목의 거센 물살

위를 직접 걸어볼 수 있으며, 강강술래 등을 모티브로 해 둥근 모양으로 조성된다.

바다 쪽으로 직선거리 32m까지 돌출되고, 바닥을 투명 유리로 만들어 스릴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현재 공정을 70%를 돌파했으며 오는 6월 준공할 예정이다.

해남과 진도간 해협 960m를 가로지르는 울돌목 해상케이블카도 명량대첩축제 개최 전 운행을 목표로 오는 9월 개통 예정이다.

10인승 곤돌라 26대가 운영되며, 해남군 우수영 관광지 일원 1854㎡(지하 1층, 지상 3층)와 진도군 녹진타워 일원 504㎡(지하 1층, 지상 1층)에 승



강장 등이 건립된다.

임진왜란 당시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선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 전승지인 울돌목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는 코스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함께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먹거리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역사관

광촌과 법정스님 생가에 조성되는 해남 인문학하우스 건립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우수영 역사관광촌은 우수영 관광지 내 부족한 먹거리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2022년 완료로 목표로 시설개 용역을 추진 중이다.

문내면 우수영 출신인 법정스님을



기리는 해남 인문학하우스 조성도 올해 완료된다. '무소유'를 주창한 법정스님의 사상을 기반으로, 생가터에는 법정스님의 상징인 빈의자가 놓이고 조망대와 함께 유품 및 책으로 구성된 작은 도서관은 오는 6월 준공, 하반기 개관한다.

명현관 군수는 "호국의 성지로 전통

적 역사관광의 이미지가 강했던 우수영에 각종 체험시설 등이 들어서며 활기 넘치는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착실한 사업추진으로 서남권 관광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완도군 스마트 치유마을 조성사업 순항

정주 여건 개선·관광객·인구 유입·소득 창출 기대

완도군은 2019년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스마트 치유마을 조성 사업이 선정되어 총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마트 치유마을은 군외면 불목리 일원에 조성 중이며,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정주 생활여건 개선,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관광객·인구 유입과 마을 소득 창출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현재 군외면 불목리 일원에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여가, 문화, 공동체 생활 서비스 플랫폼인 스마트센터와 스마트 치유 숙박 시설인 힐링하우스 2동을 조성 중이다.

또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사업 대상지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ICT를 기반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자동 신고가 되는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와 말벗 서비스 구축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아울러 재해나 재난 상황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 복지 및 생활 편의 서비스를 공용화하여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센터와 힐링하우스는 올해 1월에 착공하여 상반기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구조물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공정률 50%를 채웠다.

준공 이후에는 체험 콘텐츠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완도=이민혁기자

장흥군, 지하누수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다방면 홍보

동파·해빙기 기온 변화 등 수도관 파열 등 각종 누수사고 증가

장흥군은 최근 동파와 해빙기 기온 변화 등으로 수도관이 얼고 녹는 현상이 반복되어 수도관 파열 등 각종 누수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지하누수에 따른 상수도 요금 감면 정책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일반적으로 상수도 요금이 전월

에 비해 과다하게 부과됐거나 옥내 수도꼭지를 모두 잠갔는데도 수도계량기 계기판 별침이 돌아갈 때에는 누수를 의심해야 하며, 즉시 설비업체에 연락해 수리해야 한다.

이때 지하누수일 경우에는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영수증 및

공사 확인 사진(전·중·후)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변기·물탱크·보일러·수도꼭지 등 노출배관에서 물이 새는 지상누수일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평소 수용가의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감면은 수용가에서 자부담 수리 후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흥군 수도사업

소에 제출하면 검토 후 정상 사용 5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요금의 70%가 정산·환불 처리된다.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지하누수 감면 신청 시 수리 영수증 및 공사 확인사진(전·중·후) 등 구비 서류가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된 포스터를 제작하고 수도요금 고지서 및 장흥군 홈페이지 활용을 통해 다방면으로 홍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장흥=김도영기자

강진군, 벼 정부보급종·우량종자 160톤 공급

벼 보급종 차액 지원...경영비 부담 줄이고 고품질 종자 공급

강진군은 쌀의 품질향상과 종자갱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청무, 새일미, 백옥찰 등 2020년산 벼 정부보급종 및 농업실용화재단산 우량종자 25품종에 대해서 오는 31일까지 160톤 가량을 공급한다.

벼 정부보급종은 신청하신 지역의 농협에서 수령할 수 있고 우량종자(농업실용화재단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수령하실 수 있다.

정부보급종은 국립종자원에서 생산·공급하는 품질 보증 종자로 생산 단계별 철저 품질관리하여 순도가 높고 품종 고유의 특성을 잘 보존하고

있어 발아율이 높다. 하지만 정부보급종 가격에는 재종 관리와 정산·소독 등의 비용이 반영되어 공공비축미 구매 가격에 비해 약 40%비차 공급 가격에 부담을 느꼈던 농가들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군은 도비를 확보하여 정부보급종의 공급가와 구매가의 차액인 약 1만원(20kg기준)을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줄이고 보급종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정부보급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부 품종은 최대한 농업실용화재단을 통하여 최대한 확보하여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다.

강진=김영일기자

K-water 진도수도지사, 하천정화활동



지난 25일, K-water 진도수도지사는 세계 물의 날(3.22)을 맞이하여 주민에게 물의 소중함을 홍보하기 위해 노사공동 하천정화활동에 나섰다.

진도천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와 각종 폐기물을 수거하며 건강하고 깨끗한 물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썼다.

이날 진도수도지사 직

원들은 하천정화활동을 통해 친환경 물종종업으로서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적극 동참을 다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